

| 위원회 동정_ 금융산업위원회 |

금융산업 장시간 노동 해결 위해 실태조사 추진키로

이덕재 전문위원

금융산업위원회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구성·운영키로 합의한 이후, 금융산업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설치를 공식 제안('18.5.10.)함에 따라 '18.11.19. 출범하였다. 첫 회의에서는 회의체 명칭과 '금융산업발전과 좋은 일자리 관련'이라는 주제로 논의의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제2차 전체회의('18.12.4.)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병운 위원이 '우리나라 금융산업 현황과 전망: 은행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바라보는 금융산업의 현황과 쟁점을 논의하였다.

세 번째 논의('18.12.19.)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긴급현안 안건으로 제안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긴급현안 의제의 특성에 따라 카드수수료를 담당하고 있는 흥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직접 출석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올해 1.17.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는 세부 논의의제 채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노동계는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이라는 기조 하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과 ‘금융권의 과도한 경쟁문화 개선’을 제안했고, 경영계는 ‘금융산업 발전’의 기조 하에 ‘임금체계 개선’과 ‘산별교섭 효율화’를 각각 제안하였고 논의 끝에 각 과제가 세부 논의의제로 확정되었다.

제5차 전체회의(19.1.30.)에서는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세부논의 의제로 선정된 노동계 제안의제(“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금융권의 과도한 경쟁문화 개선”)를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은행권 노동자 장시간 노동 실태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 하에 2018년도 금융노조 전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노동계는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52.4시간으로 연간 644시간(약 3.7개월) 이상 초과노동을 하고 있으며 과로사 위험이 높은 주 60시간 초과 조합원 비중도 7.4%에 달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고객 대면업무 담당직원의 경우 8시 이후 퇴근이 27.9%로 장시간 노동이 가장 심각하며 이러한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29,000명의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위원들은 장시간 노동이 범위반의 문제인지 제도운영의 문제인지, 그리고 직급 및 직무별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등 보다 엄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이에 전체 위원들이 크게 공감하면서 향후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권현지 위원이 “금융업의 디지털 기술 변동과 고용관계”라는 주제로 디지털과 금융부문 고용의 주요 동향과 의미를 설명하였다.

제6차 회의('19.2.20.)에서는 경영계가 제안한 임금체계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 및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발족취지: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직면,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18.11.19. 발족